

“우리는 가장 탁월한 성품과 재능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성품과 재능이 더해져야만
열릴 수 있는 미래 하나를 잃었다.”

“원칙이 무너진 시대에 사람을 대한다면,
다른 사람이 외롭지 않게
저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충북의 노조, 단체를 망라해
민영이를 칭찬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부딪힌 공동의 문제를 정리해내는 데에
탁월했다.”

“언니처럼 좋은 사람과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네가 지나왔던 발자취를 따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밝히는 빛을 보았다고
감히 말하고 싶구나.”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좌충우돌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뿌듯하다.
나조차 잘은 몰랐던 부분에서, 내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혹은 고군분투하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구나, 하는 기분이 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불투명한 미래지만 그래도 살아볼만한 것 아닌가.”

“작년에는 첫 발을 떼면서 ‘일단 모여보자,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이었다면, 올해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만큼 희망도 분명히 있다.”

세상을 적시는
단비같은 사람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송민영 추모집

세상을
적시는
단비같은
사람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송민영 추모집



송민영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성장했다.
200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 미학/모반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입학 직후부터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학번 대표를 맡아
동기들의 중심이 되었다. 2005년 미학/모반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2006년 인문대 학생회 집행위원장, 2007년 총학생회 정책국장을
맡았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전국학생행진 중앙운영위원회의
페미니즘 사업담당자와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2010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으로 노동운동에
진출했다. 총무차장 역할 외에도 선전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동시에 지역의 각종 투쟁사업장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다.
SNS 교육, 소식지 <단비> 발간, 3.8 여성의 날 여성노동자 사업
등을 조직하며 새로운 운동의 물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부터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조직 전반을
관장하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회원들을 지지하고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관련 사업과
모임을 맡아 진행하며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2000년대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공공운수노조 운동의 중심에 세울 방법과 더
많은 사람들의 ‘노조 할 권리’를 고민했다.
2015년 12월, 휴가차 떠났던 이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